대표적인 여성 발명품 소개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많은 발명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지난해 12월 영국 BBC 인터넷판에 소개됐다. 이 방송은 연구가인 데버러 재피가 세상을 변화시킨 여성 발명가들을 조명한 책 '천재적인 여성(Ingenious Woman)'을 최근 탈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여성 발명품에는 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접시 닦는 기계, 여과식 커피, 방탄조끼에 들어가는 물질 등이 있다. 재피는 BBC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람들이 여자는 결코 아무것도 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재피의 글에 따르면 여성이 발명한 첫 특허품은 1637년에 세상에 선보였다. 이때부터 1914년까지 영국에서만 5백명의 여성 발명가가 있었다. 이 중에는 1886년 조제핀 커크런이 만든 접시 닦는 기계, 메리언 도너번이 고안한 일회용 기저귀 등이 있다. 여성 발명품들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가정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러나 재피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해상 조난신호 장비와 구명 재킷 등도 여성의 머리에서 나왔다. 영국 시인 바이런의 딸 에이더 러브레이스는 1842년 최초 컴퓨터의 하나인 분석 엔진의 구상과 발명에 깊이 관여했다.

재피는 여성들이 실제 발명에 아주 적합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발명가에게는 창조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 같은 것이 있다'면서 '여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그 같은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동차업체, 지재권 소송 러시

혼다, 도요타,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대(對) 중국 지적재산권 소송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중국 토종 및 국내외 합작기업이 이들 다국적기업의 상표나 디자인을 베꼈다고 중국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있는 것.

도요타가 중국 최대 민간 자동차업체인 길리를 상대로 상표 도용 침해 소송을 낸 데 이어 닛산은 또 다른 중국업체인 만리장성자동차에 자사 디자인을 도용한 혐의로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

중국 내 최대 글로벌 업체인 폴크스바겐도 이에 앞서 상하이 소재 중국 국영 자동차업체인 체리와 지적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혼다도 지난주 상표권 침해 혐의로 청킹 소재 2개 중국업체에 소송을 걸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송 러시는 전자제품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중국 시장에 워낙 만연한 불법 복제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료주의 특성상 피소 중국업체들이 대부분 지방 정부 소유 국영업체로 업계 영향력이 막강한 터라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이들 외국업체들의 딜레마다.

실제 도요타는 길리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번주 초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 소재 법원은 판결문에서 길리의 상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도요타 상표와 구분 가능하다며 중국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가 앞으로 자국 및 국내외 합작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자동차 소송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시금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요타의 패소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GM은 소송 제기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이에 앞서 체리가 생산한 두 종의 차량이 한국의 GM대우가 만드는 차량의 디자인을 복제했다고 보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모토로라 & 화웨이, 합작법인 설립 검토

모토로라가 중국 최대 전화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3세대(3G) 이동통신 시장을 겨냥한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유력 경제전문지인 21세기 비즈니스헤럴드가 지난해 12월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합작법인의 투자비율은 50대 50으로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기술과 유럽식 이동전화(GSM) 등의 연구개발(R&D)과 생산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의 합작법인 관련 협상은 오는 음력 설(1월 22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양사는 중국시장에서는 합작사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예정이며 수출시에는 모토로라의 상표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